

# 강진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하위 70% 25만원

강진군이 고유가와 고물가로 인한 주민 생활 부담 완화를 위해 18일부터 7월 3일까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을 받는다.

이번 2차 지급은 소득 하위 70% 주민과 1차 신청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추진되며, 약 2만 4천 명이 지원 대상이다.

1차 지급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2차 지급은 소득 하위 70% 주민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 것이 가장 큰 변화다.

2차 지급 대상은 가구 합산 2026년 3월 부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로 정해지며, 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60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50만 원, 2차 일반 대상자인 소득 하위

70% 주민 25만 원이다. 인구감소 특별지원지역인 강진군은 일반 대상자에게 25만 원을 지급하는 지역에 해당한다.

신청은 지역사랑상품권 앱 '착(chak)', 카드사 홈페이지 및 앱, 콜센터·ARS 등을 통한 온라인 신청과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신청으로 가능하다.

신청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시행 첫 주인 5월 18일부터 22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18일 월요일은 1·6, 19일 화요일은 2·7, 20일 수요일은 3·8, 21일 목요일은 4·9, 22일 금요일은 5·0에 해당하는 주민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 여부나 지급 기준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국민신문고를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을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전운재 기자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지급 사진

/강진군 기획홍보실 제공

## 청계면 지사협, 저소득 가정 아동 맞춤형 안경 지원

청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감미간, 박정수)는 지난 3월부터 저소득 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맞춤형 안경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이번 사업은 경제적 부담으로 시력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으며, 신청 접수를 거쳐 관내에 주소를 둔 저소득 가정 아동 15명에게 지원이 이뤄졌다.

지원 대상 아동들에게는 전문 시력검사와 함께 개인별 맞춤형 안경이 제공됐으며, 1인당 10만 원 상당의 안경 구입비도 지원됐다.

특히 지난 3월 협약을 맺은 남악글라스샵 안경점은 지원금의 40%에 해당하는 4만 원을 후원하며 사업에 힘을 보탰다.

감미간 청계면장은 "아이들이 보다 밝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작은 도움을 전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용운 기자

## 강성휘 후보, 목포 장애인단체 간담회·지지 선언



목포 시청 전경 사진

/목포 시청 제공

더불어민주당 목포시장 후보 강성휘가 장애인 권의 증진과 복지정책 강화를 위한 정책 행보를 이어갔다.

강 후보는 지난 18일 목포대전환선거사무소에서 목포지역 10개 장애인단체와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국회의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비례대표 문애준 후보가 참석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전

남도당 목포시지역위원회 김홍봉 장애인위원장 등이 진행을 맡았다.

이번 간담회는 장애인의 이동권·여가권·복지권 처우를 개선하고, 장애인 지원사업의 공공성과 실효성을 높여 장애인이 차별 없이 참여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서미화 의원은 인사말에서 "강성휘 후보는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장애인들의 삶에 누구보다 깊은 관심을 갖고 함께해 온 동지"라고 말했다. /박성태 기자

## "녹색 힐링공간 확대"...함평군, 해안·생활권 '도시숲' 선보인다

전남 함평군이 해안 경관 명소 조성 및 생활 밀착형 녹지 제공을 위해 추진한 '도시숲' 조성을 완료하고 새로운 녹색 힐링공간을 선보인다.

함평군은 19일 "손불면 석창 해안 일원의 복합산림경관숲과 대동면 나비베스타운 인근의 생활밀착형 숲정원 조성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군민 생활권과 해안

지역을 아우르는 도시숲을 조성해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일상에서 자연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군은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도시숲을 조성했다. 손불면 석창에는 해안 환경 특성을 반영해 복합산림경관숲을 조성했다.

▲팬나무 ▲해송 ▲배롱나무 ▲서부해당화 등 다양한 수목과 초화

류를 식재해 사계절 경관을 연출했으며, 전망데크와 주차 공간을 정비해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대동면 나비베스타운 인근에는 생활밀착형 도시숲을 조성했다. 유소년 야구부 전지훈련지 주변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선수단과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녹색 쉼터를 마련했다. /이문수 기자

## 영암군, 2026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영암군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최근 영암읍 회문리 대동제 일원에서 민·관·군 합동으로 '2026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행정안전부가 설정한 저수지 제방 붕괴 상황을 바탕으로 진행됐으며, 복합재난 발생에 대비한 영암군과 유관기관 간 공조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에는 7개 유관기관과 민간단체가 참여해 태풍과 극한호우로 대동제 제방이 유실되고 건물 붕괴와 다수 인명피해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대응 훈련을 실시했다.

특히 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현장지휘부를 중심으로 상황 전파와 주민 대피, 현장 통제, 인명 구조, 응급 복구 등 실제 재난 상황에 준한 대응

절차를 점검했다.

소방항공대와 연계한 고립 주민 구조 훈련도 함께 진행돼 현장 대응 역량을 높였다.

또 위기 징후 감지부터 초기 대응, 수습·복구 단계까지 각 기관의 역할과 협업 체계를 점검하며 재난 대응 매뉴얼의 실효성을 확인했다. /이문수 기자

## 신안군, '2026 섬 샤프스타 데이' 축제 성료

신안군 장산도에서 열린 '2026 섬 샤프스타데이 축제'가 7,000여 명의 관람객을 끌어모으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지난 5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장산도 화이트정원에서 진행된 이번 축제는 '하얀 파도가 꽃으로 피어나는 섬'을 주제로 열렸다.

하얗게 물들인 샤프스타데이가 절정을 이루며 초여름의 아름다운 풍경을 선사했고,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방문객들은 사진 촬영과 산책을 즐겼다.

특히 올해 축제는 관람객들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축제 기간 중 열린 '장산 주민 노래자랑'은 장산도 각 마을을 대표하는 주민들이 출현해 숨은 끼를 맘껏 발산하며 축제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했다. /박성태 기자

가고싶은 멜로우시티 장성호 수변길

영암군출장소대리

수변 데크길(왼쪽)

황금빛출장소대리

수변 데크길(오른쪽)

멜로우 시티 장성군